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사랑과 생명의 나눔을 이웃 안에서 실천하기 위해 1988년故김수환추기경님에 의해 설립되어 국내를 비롯한 지구촌 곳곳에서 나눔운동과 생명운동을 펼치고 있는 가톨릭재단입니다.

VOL.236
2023

01

한마음한몸운동본부 2022-2023 연말연시 캠페인



아프리카의 하얀 천사 지킴이 프로젝트

나아가라, 아이들아, 나아가라! (바룩 4,19)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이번 연말연시를 맞아 아프리카 탄자니아 '므완자' 지역의 알비노 아이들을 지원하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알비노(Albino)는 멜라닌이 부족해 나타나는 선천성 유전질환인 백색증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피부나 머리카락 등이 흰색을 띠기 때문에 피부색이 검은 아프리카인들 사이에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한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알비노의 신체 일부를 가지고 있으면 행운이 온다는 미신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알비노 아이들이 차별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 할 수 있도록 이번 캠페인에 함께 해 주세요.



아프리카의 하얀 천사 지킴이 프로젝트 후원하기

- 모금기간 : 2022.12.01.(목)~2023.01.31.(화)
-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684-077777
- 예금주 :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문의 : 02-774-3488

- ※ 무통장 입금시 후원자명 앞에 '천사'를 붙여주세요.(예시: 천사홍길동)
- ※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 세액 공제 받으실 분의 성함으로 입금하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홈페이지 <http://obos.or.kr> 에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 아프리카의 하얀 천사 지킴이 프로젝트 후원금 전액은 탕가 하우스의 알비노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사용됩니다.

카불라의 꿈

한마음한몸운동본부 국제협력센터장 이창원 다니엘 신부



‘카불라’를 처음 만난 건 제가 탄자니아에서 선교사로 지내던 2015년 10월의 무더운 어느 날이었습니다. 생김새는 분명 아프리카 아이인데 피부가 하얗고 머리카락이 노란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불안해하며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이는 한쪽 팔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카불라’.

백색증을 앓고 있는 알비노 아이였습니다. 아이와 첫 만남시 저는 한국에서 온 선교 사제인데 만나서 반갑다고 고개를 숙여 한국식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선교 사제라는 말에 카불라의 경계하던 얼굴이 금세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하게 한국말로 인사를 하는 아이를 보고 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국 인사를 아느냐고 물었더니 한국 음악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음악이 너무 좋아서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카불라의 팔이 없어지게 된 그날의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카불라는 참 밝고 명랑한 아이였습니다.

탄자니아는 각 마을마다 주술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상한 미신을 만들어 내고 마을 사람들은 그러한 미신을 믿고 살아갑니다. 탄자니아의 많은 사람들은 피부색이 다른 알비노 신체의 일부를 가지고 있으면 건강해지고 행운이 찾아온다는 미신을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알비노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박해를 받습니다.

그 사건이 있던 날, 카불라는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괴한들이 들어닥쳐 세 번이나 커다란 칼을 휘둘러 카불라의 오른팔을 가져갔습니다. 카불라와 가족들이 받은 충격과 상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탄자니아는 아프리카 안에서도 알비노 출생률이 높은 국가로 현재 약 17,000명의 알비노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박해를 받고 차별을 받으며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번 본부의 **연말연시 캠페인 ‘아프리카의 하얀 천사 지킴이 프로젝트’**는 탄자니아의 알비노 보호시설인 탕가 하우스를 지원합니다. 탕가 하우스는 탄자니아 내 알비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모아진 기금은 더 많은 알비노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숙사를 증축하는데 쓰이고 아이들의 질병 치료와 교육 활동, 인지 개선 활동을 위해 쓰이게 될 것입니다.

카불라는 이야기합니다.

“신부님, 저는 탕가 하우스에 지내면서 꿈이 생겼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저 같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는 변호사가 될 거예요!”

눈빛을 반짝이며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카불라가 대견하게 느껴졌습니다.

탕가 하우스에 있는 제2의 카불라와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위해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병원생활을 하느라 가족
모두 성탄절을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성탄절을
밖에서 보내는 게
이번이 처음인데,
이렇게 선물까지 받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가 아프고 처음 맞는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엄마인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그래도
산타의 선물에 기뻐하는
아이에 눈물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산타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산타
의 선물로 누군가 아이를 응원하고
있음에 감사드리고,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이 선물을 다시
 돌려 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함께
기도했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로 지치고
힘들어도 엄마 마음 아플까
봐서 억지 웃음을 보이던 아들이
이렇게 누군지 모를 분들이
자신을 위해 선물을 보내주
셨다며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다며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아이가 씩씩하게
주사 잘 맞아서 산타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셨다고 자랑합니다.
보내주신 큰 이불박스에 이불을
넣어서 집짓기 놀이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산타가 되어주세요’ 캠페인을 통해 사랑의 산타 선물을 받은 환아들이 보내온 사연입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와 ‘2022 산타가 되어주세요’ 캠페인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 감사를 전합니다.
병실이나 집안에서만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야 하는 아이들에게 사랑의 응원을 전하기 위해 진행한 이번
캠페인에 **1,780명의 후원자분들이 산타가 되어 총 215,379,324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본부는 이를 통해 348명의 환아들에게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하고, 특별히 경제적인 돌봄이
필요한 환아 51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러한 나눔의 기적은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코로나 19의 상황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산타가 되어주세요’ 캠페인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마음한몸 정기·일시 후원

당신은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한마음한몸의 새로운 후원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기, 일시후원 참여신청 및 문의 02)774-3488

12월의 새로운 한마음한몸 나눔 가족입니다.

(2022년 12월 1일 ~ 12월 31일 기준)

[illegible]

생애주기별기부로 따뜻한 세상 만드어요!

참여신청 및 문의 02)727-2299

'생애주기별기부'는 생애 뜻깊은 날 자신 또는 사랑하는 이의 이름으로 나눔의 기쁨을 선물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일상 속의 나눔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기부입니다. (2022년 12월 1일 ~ 12월 31일 기준)

첫번째 기부 고대웅 레오 | 김유림 예세피아 | 김은호 | 김한아름 스틸라 | 김현지 | 김혜인 루키아 | 마서인 | 박서인
서윤슬 베레나 | 송주연 | 송주연 | 송준모 | 송준모 | 유설 소피아 | 윤하리 | 이레나 | 이루다 | 이산 | 이지우 | 이현서 |
장하준 요한보스코 | 정유진 | 정미애 | 최예슬 | 하은호 | 홍민주 라파엘라

두번째 기부 구제연 | 기태린 플로라 | 김건유 | 김지유 | 남지오 바오로 | 배지안 마리아 | 이서진 가브리엘 | 이서현 | 임지현 스텔라 | 하선우 | 허태훈 마태오 | 황시현

세번째 기부 김도는 | 김리온 | 김승재 바르톨로메오 | 박건울 사도요한 | 배이안 사도요한 | 윤희람 | 이시안 | 이하을 | 전서현 | 조연진 글로리아 | 조유주 그라시아 | 최예진 엘리사벳 | 하윤 베레나 | 허시아 | 황태현 사도요한

네번째 기부 김가을 | 김수호 가브리엘 | 박호연 세례자요한 | 우연호 다윗 | 유진 마리스텔라 | 이도겸 | 이연우 스텔라 | 이은빈 로사리아 | 정요한 사도요한 | 지소랑 | 천수현 안토니오 | 황민서 안젤라 | 황민우 니콜라오

다섯번째 기부 김선하 그라시아 | 박채은 첼리나 | 변의준 | 손건우 레오 | 이상윤 스테파노 | 이서진 빅토리
아 | 이정은 | 조예건 다니엘 | 조예건 다니엘 | 조은정 | 최봄 노엘라 | 최아원 | 허주원 레오

여섯번째 기부 김아정 | 김효은 프란치스카 | 박승연 이나시오 | 양소울 | 염태운 하상 바오로 | 오윤성 토마스 아퀴나스 | 오윤진 체라 | 윤라임 | 윤지호 레오 | 이준상 | 임소정 사라 | 전서운 엘리사벳 | 조은성 | 차다운 플로라

일곱번째 기부 김리호 루치아 | 김민진 가브리엘라 | 김은송 그라시아 | 김채운 라파엘 | 노이진 마리아 | 류연서 | 이재유 노엘 | 조영우 노엘 | 지소현 그라시아 | 채지호 보나

여덟번째 기부 김민석 가브리엘 | 김아윤 마르첼리나 | 김재은 야고보 | 김재희 요한 | 김주아 스텔라 | 박지안 | 이다빈
| 이상우 요한 | 정하람 마리스텔라 | 정희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 최라엘 라파엘라 | 한예슬 빅토리아

아홉번째 기부 류현우 | 엄지유 에디트 | 이준희 | 조예서 율리야나

열번째 기부 김태근 비오 | 이승수 스테파노반델리 | 허상범 루카 | 홍리안 | 홍지안 마틸다

열두번째 기부 남연우 | 정회원 돈보스코

열네번째 기부 이준수 사도요한 | 이서현

생일 기부 김부영 요셉 | 안주희 미카엘라 | 김동규 요한보스코 | 김동건 요아킴 | 이웅세 레오 | 김우상 안토니오 | 강영지 데레사 | 양승모 | **홍희진** | 설현수 미카엘라 | 김아정 | 김아윤 마르체리나 | 김아현 엘리사벳

아름다운 부부의 기부 강승우 & 서재현 스텔라 | 김민철 도미니코 & 홍근우 비비안나 | 김재연 & 이영순 엠마 | 김태호 테오도로 & 박은영 소하테레사 | 김희철 도미니코 & 이재영 유스티나 | 배성준 세례자요한 & 한혜주 글라디스 | 송주호 발렌티노 & 정지인 요세파나 | 오오셀 & 권율리안나 | 윤승현 & 구현주 | 이광선 & 김선주 | 이선기 사도요한 & 나혜경 데글라 | 이옥형 가브리엘 & 곽은 수산나 | 조수환 안드레아 & 이의선 글라라 | 천재영 스테파노 & 전은선 헬레나

감사 기부 김정선 데레사 | 김정연 세실리아 | 박다인 유스티나 | 박상준 | 이서현 | 이슬아 캐서린 | 이유현 에스텔 | 이진승 아브라함 | 임진옥 사도요한 | 조수영 플로렌티나 | 찰캠핑 | 한연경 비아

고인을 기억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의 기부 故 구현진 제랄도 | 故 김진홍 & 고 양복남 | 故 손종수 | 故 이종희 마태오 | 故 이철옥 말따 | 아기천사 홍해성

총 173명

1월의 금(金)모닝, 한마음한몸 월레미사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후원자들을 위한 금(金)모닝, 한마음한몸

올해는 본부를 후원해주시는 분들의 지향을 모아 함께 기도하자는 취지로 매월 본부 국제협력센터 및 생명운동센터장 이창원 다니엘 신부님의 주례로 미사가 봉헌됩니다. 특히 올해 월례미사는 개선된 코로나 19 사회적거리두기 상황으로 대면 미사로만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요청드립니다.

- 일시 : 1.27(금) 미사 11:00~11:40
■ 장소 : 명동 가톨릭회관 3층 대강당

이창원 다니엘 신부님
한마음한몸운동본부
국제협력센터 및 생명운동센터장



지금 $\oplus N!$

한마음한몸으로 환경을 생각합니다

본 소식지는 콩기름을 활용한
친환경 인쇄로 제작했습니다.